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 관람이 치매 인식에 미치는 효과

박소연, 김덕주*
청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The Effect of the Visit to Dementia Home Experience Program on the Awareness of Dementia

So Yeon Park, Deok Ju Kim*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Cheongj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 관람이 치매 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며, 치매 가정 체험프로그램 관람에 대한 만족도와 전시관을 관람 한 후 치매에 관한 인식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2018년 4월 5일부터 5월 25일까지 S시에 거주하는 주민 52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은 현관, 화장실, 거실, 주방 각 공간들에 필요한 복지용품 등이 비치되어 구성되었으며,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과 노인 체험복 착용 프로그램들이 함께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 관람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 관람이 치매 인식 개선에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치매의 원인, 역학 및 제도, 증상 및 진단,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의 점수가 전시관 관람 후 눈에 띄게 상승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대상자의 연령이 중년 이상인 경우 치매정보제공 및 예방법 소개, 안전하고 편안한 가정환경 조성방법 소개, 체험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에서 만족도가 다른 연령대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단시간에 높은 교육 만족도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추후 더욱더 확장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치매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at people's visit to a dementia home exhibition hall is effective at improving their perception of dementia. The satisfaction of visitors to the dementia home exhibition hall and a change in their perception of dementia after the visit were analyzed. The study subjects were 52 residents in S city. This study had been conducted from April, 5 to May, 25, 2018. The dementia home exhibition hall has welfare kits installed in an entrance, a rest room, a living, and a kitchen. Virtual reality experience program and the program of wearing clothes to experience an elderly person were performed together. As a result, the visitors' satisfaction was high overall, and their visit was educationally effective at improving their perception of dementia. After their visit to the hall, the residents showed high increases in the scores of the questions about the perception of dementia causes, dynamism & system, symptoms & diagnosis, and treatment & prevention. The residents with middle years and higher of age were more satisfied than those in other age groups with the introduction of dementia, and prevention methods, introduction of safe and comfortable home environment, and appropriateness of experience program. In this study, it was positive that the differentiated experience program which was not existed actively led the participation of the target person and attracted high education satisfaction in a short time.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an extended experience program, provide an environment for direct experience of dementia, and perform a continuous program to draw more citizens' attention.

Keywords : Dementia, Home Experience Program, Awareness, Satisfaction, Environment

*Corresponding Author : Deok Ju Kim(Cheongju Univ.)

Tel: +82-43-229-8385 email: dj7407@hanmail.net

Received July 13, 2018

Revised (1st August 7, 2018, 2nd August 21, 2018)

Accepted October 5, 2018

Published October 31,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31년 5,29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5년에는 -1.03%인 4,302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26년에는 기준 노인 인구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1]. 이처럼 인구 고령화 현상은 만성질환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인의 증가를 동반하게 되는데, 특히 부양가족에게 부담되는 질환 중 하나가 치매이다[2]. 치매는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유병률이 10.2%이며, 전체 치매 노인 수는 약 72만 5,000명으로 추정된다[3].

치매는 보건학적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치매를 핵심적인 노인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정책을 법령에 따라 수립·수행 중이지만[4], 정작 당사자들은 치매를 노화의 현상으로 가볍게 여겨 조기 진단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복지 정책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5].

치매는 기억장애와 더불어 언어장애, 시공간장애, 혹은 집행기능 장애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보이는 임상증후군으로, 이러한 장애들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정의된다. 치매가 점차 진행될수록 망상과 배회 등의 정신 증상과 우울, 불안, 초조, 위축 등의 심리적 경험이 동반되고 증상은 비가역적으로 악화하는 질병이다[6]. 치매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를 들 수 있고, 그 외에 루이체 치매, 전두 측두엽 치매, 알코올 치매 등이 있다[7]. 대부분의 치매는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행동심리증상(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BPSD)을 보이는데 이는 지각, 사고, 정서 또는 행동 장애에 의해 발현되는 증상들을 의미하며, 증상으로는 불안, 공격성, 배회, 소리 지름 등의 초조 증상과 환각, 섬망 등의 정신 증상, 불안과 우울과 같은 기분장애와 식이장애, 탈 억제 같은 행동이 포함된다. 이 같은 증상은 치매가 진행되면서 더 심각해진다. 때문에 치매 노인은 약물 오남용과 장기요양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치매 노인의 보호자도 부담감과 우울함을 느끼게 된다[8].

우리나라는 노인부양의식과 치매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의 부족, 과도한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9].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 사람들은 배우자나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많다. 이들을 돌보는 가족은 치매 노인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이지만 보이지 않는 제 2의 환자라고 할 정도로 과중한 부담감을 가진다[10]. Mace와 Rabin[11]은 이런 가족 부양의 특성을 ‘36시간의 하루’라고 정의하였다. 치매 노인의 증상에 따라 부양 부담의 정도와 범위는 달라지겠지만, 자신의 시간을 전적으로 할애해야 하는 부분에서 그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진국들, 특히 미국의 치매 정책은 보호의 접근성과 질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자는 기본 목표를 두고 치매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센터를 설립하여 치매의 조기 검진, 치료, 진단, 연구, 의료 인력에 대한 훈련, 가족에 대한 도움 및 서비스제공에 관심을 두고 있다[12].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국에서도 치매의 검진, 치료, 진단, 연구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록 정부 차원의 치매 노인 복지가 시행되고 있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크게 부족하고, 특히 치매 노인 혹은 부양가족에 대한 재가 서비스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13].

가정은 치매 노인에게 가장 익숙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치매 노인의 권리와 인권을 고려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14]. 치매 노인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더 크고 중요하며 치매 노인을 위해 디자인된 건축 환경은 치료적 환경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의견들이 ‘물리적 환경의 치료적 잠재성(therapeutic potential of the physical setting)’에 대한 이론과 실험적 증거들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치매 노인을 위한 거주환경은 치매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문제를 경감시키므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15].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정책 흐름을 파악하되,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에게는 환경 수정에 대한 직접적인 아이디어를 주고자 하였으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추후 가족들 중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치매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정에서 돌봄을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체험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개발한 인지

건강 주거환경 안내책자와 충남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한 주거환경 수정지침을 참고하여 치매 노인의 행동심리 증상을 완화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조성된 체험전시관은 크게 화장실, 현관, 거실, 주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매트, 높이조절이 가능한 샤워기, 안전손잡이, 목욕 의자 등 목욕을 할 때 위험부담을 최소화 해 주고, 가족들이 쉽게 치매 노인의 목욕을 도울 수 있는 구성으로 만들어졌다. 현관에는 치매 노인이 일상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글씨가 큰 달력이나 빛 조절이 가능한 조명, 경사지시대 등이 설치되어 있다. 주방에는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보조도구나, 스스로 약을 시간에 맞게 찾아서 먹을 수 있는 도구들이 있고, 거실에는 인지기능에 도움이 되는 각종 인지자극 도구들이 구비되어 있다. 최대한 본인 스스로 가정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도움을 주는 가족들도 너무 힘들이지 않고 보조해 줄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가정을 본 체험전시관처럼 수정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지만, 본 전시관을 모델로 삼아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에서 비슷하게 꾸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예방 활동 및 잘못된 편견을 바로 잡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였으며,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지역 시민의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되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이 치매 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 관람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다.
- 2)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을 관람 한 후 치매에 관한 인식도 변화를 비교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에 따른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알아본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전시관 관람이 치매 인식도 변화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연구대상자들의 설문을 통해 결과를 분석한 실험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S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다양한 연령 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노인 유관시설, 아파트 단지 및 공공시설 등에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의 내용이 담긴 홍보 리플렛을 배부하였고, 전화로 관람신청을 받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4월 5일부터 5월 25일까지였으며, 이 기간 치매 노인 가족과 학생, 일반 시민 등 총 52명의 대상자가 관람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 전시관 체험 후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 치매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2.3.1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

치매 노인의 행동 심리 증상을 완화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에서 치매 노인이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모델하우스이다.

전시관은 크게 현관, 화장실, 거실, 주방 총 4곳으로 분류되며, 각 공간에 필요한 복지 용구 약 40여 가지가 비치되어 있다. 화장실에는 미끄럼방지매트,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등이 있으며, 현관에는 배회감지기, 빛 조절이 가능한 조명, 경사지시대, 수납의자 등이 비치되어 있다. 주방에는 조리가 간편한 가전제품, 식사보조도구, 약 먹는 달력과 타이머, 화재감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거실에는 치매에 좋은 식습관 등 치매에 도움이 될 활동과 기능 유지를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인지 교구 등이 갖추어져 있다.

치매 인식 개선 교육을 목적으로 치매 노인이 되어 정신 사회적 어려움을 겪어볼 수 있도록 VR 체험을 진행하였다. 제주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한 VR 콘텐츠를 활용하였으며, 콘텐츠는 치매 노인이 마트에서 장 보는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이며, 그 과정에서 치매 노인이 겪는

어려움과 타인의 시선 등을 간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노인 체험복을 착용하여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해보는 체험 활동을 진행하였다. 노인 체험복은 노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노인이 아닌 관람자들이 고글, 접이식 등 보호대, 구속 도구(장애물), 장갑, 귀마개, 모래주머니를 착용하여 간접적으로 노인의 신체적 어려움(시력 및 청력 저하, 관절가동범위 저하, 근력 저하, 감각 둔화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2.3.2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 관람 만족도 조사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 관람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만족도를 조사한 안대영 등[16]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성별, 나이, 치매 가족 유무, 치매 노인과의 관계, 치매에 관한 관심을 묻는 일반사항과 치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예방법 소개, 환경 조성방법, 인식개선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6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서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로 체크할 수 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는 1점~5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뜻하며, 모든 항목의 총점을 계산했을 때, 최저 6점~최고 30점까지로 나타낼 수 있다. 6가지 문항에 대한 리커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 으로 나타났다.

2.3.3 치매 인식도 조사

치매 인식과 지식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에서 개발한 치매 인식도 설문지를 이용하였다[17]. 치매 인식도 설문지는 총 15문항으로 치매의 원인 5문항, 역학 및 제도 3문항, 증상 및 진단 4문항, 치료 및 예방 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설명이 옳으면 ‘그렇다’, 틀리면 ‘아니다’로 ‘그렇다’가 정답인 문항 7개와 ‘아니다’가 정답인 문항 8개이며 정답이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전체 점수는 0~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1$ 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프로그램 관람후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 2) 대상자의 치매 인식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paired t-test를 사용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성별은 여자 30명(57.7%), 남자 22명(42.3%)이었으며, 나이는 20세 미만이 24명(46.2%), 21~30세 미만이 10명(19.2%), 31~40세 미만이 10명(19.2%), 41~50세 미만이 6명(11.6%), 51세 이상이 2명(3.8%)이었다. 치매 가족 유무로 치매를 앓는 가족이 ‘있다’가 18명(34.6%), ‘없다’가 34명(65.4%)이었다. 치매 노인과의 관계(대상자 기준)는 부모 3명(16.7%), 배우자 부모 2명(11.1%), 조부모 10명(55.5%), 친척 3명(16.7%)이었다. 치매에 관한 관심으로 ‘매우 관심이 많다’가 11명(21.2%), ‘대체로 관심이 있다’가 13명(25.0%), ‘보통이다’가 20명(38.5%), ‘별로 관심이 없다’가 6명(11.5%), ‘전혀 관심이 없다’가 2명(3.8%)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N	%
Gender	Male	22	42.3
	Female	30	57.7
Age	≤ 20	24	46.2
	21-30	10	19.2
	31-40	10	19.2
	41-50	6	11.6
	≥ 51	2	3.8
Presence of dementia family	Yes	18	34.6
	No	34	65.4
Relations with dementia family (n=18)	Parents	3	16.7
	Spouse's parents	2	11.1
	grandparents	10	55.5
	Relative	3	16.7
Interest in dementia	Very interested	2	21.2
	Interested	6	25.0
	Moderate	20	38.5
	Not interested	13	11.5
	Not interested at all	11	3.8

3.2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 관람에 대한 만족도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 관람에 대한 만족도는 치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예방법, 환경조성방법, 체험프로그램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다.

치매에 대한 정보 제공이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22명(42.3%), ‘대체로 그렇다’가 20명(38.5%), ‘보통이다’가 10명(19.2%)으로 83.8%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치매 예방법을 집에서 따라 해 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22명(42.3%), ‘대체로 그렇다’가 19명(36.5%)으로 78.8%가 따라 해 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시관이 편안한 환경으로 조성되었는가에 동의하는 정도는 ‘매우 그렇다’가 23명(44.2%), ‘대체로 그렇다’가 17명(32.7%)으로 76.9%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전시관처럼 가정환경을 변경해 볼 의향이 있는가에 ‘매우 그렇다’가 18명(34.6%), ‘대체로 그렇다’가 15명(28.8%)으로 63.4%가 바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체험프로그램이 적절하였는가에 ‘매우 그렇다’가 18명(34.6%), ‘대체로 그렇다’가 20명(38.5%)으로 73.1%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치매에 대한 편견 해소 정도는 ‘매우 그렇다’가 18명(34.6%), ‘대체로 그렇다’가 19명(36.5%)으로 71.1%가 편견을 줄였다고 응답하였다. 각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해 보았을 때, ‘치매 정보제공에 도움이 되었다’가 4.23±0.75점, ‘치매 예방법을 집에서 따라해 볼 의향이 있다’가 4.26±0.93점, ‘전시관이 편안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동의한다’가 4.21±0.80점으로 세 항목의 만족도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Table 2].

3.3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 관람 후 치매에 대한 인식도 변화 비교

치매에 관한 인식도를 관람 전과 후 두 번에 걸쳐 시행하고 분석한 결과, 인식도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치매의 원인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는 대상자의 점수는 2.92±0.94점에서 관람 후 3.75±0.94점으로 향상되었으며($p<.001$). 역학 및 제도에 관한 질문에 올바르게 응답한 대상자의 점수는 1.76±0.78점에서 관람 후 2.53±0.60점으로 향상되었다($p<.001$). 증상 및 진단에 관한 질문에 올바르게 응답한 대상자의 점수는 2.42±0.87점에서 관람 후 3.36±0.68점으로 나타났으며($p<.001$), 치료 및 예방에 관한 질문에 올바르게 응답한

대상자의 점수는 2.48±0.64에서 관람 후 2.88±0.32점으로 나타났다($p<.001$). 치매 인식도 총점은 9.59±1.78점에서 관람 후 12.55±1.78점으로 나타났다($p<.001$) [Table 3].

Table 2. Satisfaction of the visit to dementia home experience program

Variables	N(%)	M±SD	
Helpful to provide information on dementia	Very helpful	22(42.3)	
	Generally helpful	20(38.5)	
	Moderate	10(19.2)	
	Not helpful	0(0.0)	
Intention of following dementia prevention methods	Very good	22(42.3)	
	Generally good	19(36.5)	
	Moderate	11(21.2)	
	Not good	0(0.0)	
Whether the hall makes you feel comfort	Very comfort	23(44.2)	
	Generally comfort	17(32.7)	
	Moderate	12(23.1)	
	Not comfort	0(0.0)	
Intention of changing a family environment	Very good	18(34.6)	
	Generally good	15(28.8)	
	Moderate	16(30.8)	
	Not good	3(5.8)	
Appropriateness of the experience program	Very appropriate	18(34.6)	
	Generally appropriate	20(38.5)	
	Moderate	13(25.0)	
	Not appropriate	1(1.9)	
Helpful to lower bias of dementia	Very helpful	18(34.6)	
	Generally helpful	19(36.5)	
	Moderate	14(26.9)	
	Not helpful	1(1.9)	
Total score	Not much helpful	0(0.0)	
	Total score		24.53±3.84

Table 3. Change in awareness of dementia after visiting the experience program

Variables	Pre-test	Post-test	p
	M±SD	M±SD	
Causes of dementia	2.92±0.94	3.75±0.94	$p<.001^{***}$
Epidemiology & system	1.76±0.78	2.53±0.60	$p<.001^{***}$
Symptoms & diagnosis	2.42±0.87	3.36±0.68	$p<.001^{***}$
Treatment & prevention	2.48±0.64	2.88±0.32	$p<.001^{***}$
Total score	9.59±1.78	12.55±1.78	$p<.001^{***}$

*** $p<.001$

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험 프로그램의 만족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험 프로그램의 만족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특히 연령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다른 항목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연령대가 41세가 넘어가면서 ‘치매정보제공 및 예방법 소개, 안전하고 편안한 가정환경 조성방법 소개, 체험 프로그

램의 적절성, 총점’에서 만족도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치매대상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부모일 경우 모든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른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항목은 없었다 [Table 4].

Table 4. Satisfaction of experience program by characteristics

Variables		Dementia information offering and prevention method introduction		Introduction to the method of making a family environment safe and comfort		Appropriateness of the experience program		Total score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Gender	Male	8.36±1.43	.214	8.18±1.43	-.112	7.95±1.70	-.543	24.31±3.73	-.354
	Female	8.26±1.83	(.832)	8.23±1.86	(.911)	8.20±1.47	(.590)	24.70±3.98	(.725)
Age	≤20	8.37±1.88		8.20±1.86		7.91±1.55		24.45±3.68	
	21-30	7.80±1.47		7.70±1.49		8.50±1.43		24.00±3.43	
	31-40	8.00±1.63	.995	7.78±1.61	1.480	7.30±1.70	2.149	22.80±4.36	2.321
	41-50	8.83±0.98	(.419)	9.16±0.98	(.223)	8.33±0.98	(.089)	26.83±2.85	(.071)
	≥51	10.00±0.00		10.00±0.00		10.00±0.00		30.00±0.00	
Presence of dementia family	Yes	8.11±1.77	-.596	8.00±1.74	-.645	8.11±1.56	.050	24.16±4.57	-.462
	No	8.41±1.61	(.554)	8.32±1.66	(.523)	8.08±1.58	(.960)	24.73±3.45	(.648)
Relations with dementia family (n=18)	Parents	8.33±1.52		8.00±1.73		8.00±1.00		24.33±4.04	
	Spouse's parents	8.50±0.70	.195	10.00±0.00	.935	9.50±0.70	.454	28.00±0.00	.508
	grandparents	8.20±1.98	(.898)	8.00±1.82	(.448)	8.10±1.85	(.718)	24.20±4.93	(.683)
	Relative	7.50±1.91		7.50±8.10		8.00±1.63		23.00±5.29	
Interest in dementia	Very interested	8.72±1.67		8.54±1.63		8.72±1.34		26.00±4.26	
	interested	8.30±1.88		8.53±1.94		7.69±1.65		24.30±3.32	
	Moderate	8.35±1.78	.590	8.00±1.55	.815	8.05±1.53	.730	24.35±4.30	.584
	Not interested	7.83±0.48	(.672)	7.33±1.75	(.522)	8.16±1.32	(.576)	23.33±2.80	(.675)
	Not interested at al	7.00±1.41		9.00±1.41		7.50±3.53		23.50±3.53	

*p<.05

p-value was calculated by t-test and ANOVA

4. 고찰

치매는 점진적으로 지속되는 인지기능의 저하와 행동의 문제를 가져와 당사자에게 고통을 줄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부양 부담을 줄 수 있는 질환으로[2], 보건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 가족들이 치매 노인을 부양하고 있어 이들을 돌보는 가족은 또 다른 환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된다[10]. 따라서,

치매 노인의 가정을 본인이 익숙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들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한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에게는 환경 수정에 대한 직접적인 아이디어를 주고자 하였으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치매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가정에서 돌봄을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자 하였으며, 실제 이러한 체험프로그램이 치매 인식 개선과 올바른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되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 관람 만족도는 6문항에서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항목의 합산 점수가 63.4%에서 최대 83.8%를 보여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 관람이 치매 인식 개선에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세부 문항으로는 치매에 대한 정보 제공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경우가 83.8%로 가장 높았으며 치매 예방법을 집에서 따라 해볼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경우도 78.8%였다. 이창대 등[18]은 치매 대상자 중심의 가정환경 수정 및 보호자교육 후에 치매 대상자의 작업 수행능력과 활동 수행의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연구 결과 치매 대상자의 활동 수행 수준이 높아졌고, 치매 대상자의 활동 수행 만족도 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능동적인 치매 예방 활동을 하도록 체계적이고 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전시관이 편안한 환경으로 조성되었다고 답한 경우가 76.9%였으며, 이는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이 실질적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전시관처럼 가정환경을 변경해볼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63.4%로 절반 이상 바꿀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다른 항목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었다. 이는 대상자들이 가정환경을 전시관처럼 수정하기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 것을 나타내며,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험프로그램이 적절하였다고 답한 경우는 73.1%로 높았다. 치매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었다고 답한 경우도 71.1%로 높게 나타났다.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 관람 후 대상자들의 치매 인식도 평균은 9.59±1.78점에서 12.55점±1.78로 상승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치매의 원인, 역학 및 제도, 증상 및 진단,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의 점수가 전시관 관람 후 눈에 띄게 상승함을 알 수 있었다. 일반 사람들이 치매 노인을 돌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원인은 치매 노인을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돌보기 힘든 존재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19]. 따라서 그러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치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는 지도나 교육이 필요하다[20]. 이를 위해서는 폭넓은 경험이 필요한데, 실제 환자를 돌보는 체험은 전문가 집단이 아니면 갖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 체험 전시관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인식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한다. 이는 교육적 체험 프로그램이 사회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요소라는 것과, 체험요소를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언급한 최영덕[2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 연구에서는 농어촌 휴양 마을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체험프로그램이 방문가치와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으며, 연구결과 TV나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획득보다 지자체 홍보물과 현장홍보가 훨씬 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대상자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시관의 만족도 차이를 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대상자의 성별이나 치매가족이 있는지의 유무, 치매에 대한 관심 정도가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더라도 연령대가 중년을 넘어가면서 ‘치매정보제공 및 예방법 소개, 안전하고 편안한 가정환경 조성방법 소개, 체험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에서 만족도가 다른 연령대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용미현 등[22]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관 방문자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치매 지식수준을 조사하였는데, 40대 이상의 대상자에게서 치매 지식수준 및 치매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의 대상자들이 실제 치매의 고 위험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치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본 연구에서 시행한 여러 가지 환경 수정 체험 및 치매 노인이 되어보는 체험들에 대해 만족감을 느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등을 제공한 교육프로그램이 치매 가족의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는 치매 가족 교육프로그램이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치매 인식도를 증가시키며, 부양부담감과 우울함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것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23].

본 연구에서는 치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치매 가정체험프로

그램을 구성하였고, 대상자의 흥미와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게 VR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기존에 없었던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이전의 교육프로그램 연구와 비교해 대상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단시간에 높은 교육 만족도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또한, 대상자들이 주변 치매 고위험군과 자신의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만으로도 연구의 의의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좀 더 관심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차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체험프로그램을 둘러보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가정에 적합한 환경 수정에 대한 개별 상담 및 각종 보조도구 구입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치매 노인이 있는 가정에서 인지증진교구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의 지원도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치매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한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지역 시민의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 관람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 관람이 치매 인식 개선에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 관람 후 치매의 원인, 역학 및 제도, 증상 및 진단,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의 점수가 전시관 관람 후 눈에 띄게 상승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시관의 만족도 차이를 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연령대가 중년을 넘어가면서 ‘치매정보제공 및 예방법 소개, 안전하고 편안한 가정환경 조성방법 소개, 체험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에서 만족도가 다른 연령대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 대상자가 S시 지역에만 국한되었으므로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 관람의 교육적 효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달 간의 적은 기간 안에 대상자를 모집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대상자를 선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더욱더 다양한 지역과 연령군의 대상자에게 설문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보완을 통해 치매 가정체험프로그램이 치매 인식 개선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Elderly statistics, 2014.
- [2] Y. S. Han, A study on the welfare service improvement of the old with dementia,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11.
- [3] <http://www.nid.or.kr>
- [4] J. D. Kwon, Dementia and family welfare, Seoul: Hakjisa, 2012.
- [5] <http://www.alzza.or.kr>
- [6] J. S. Jang, S. K. Kim,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memory by the types of dementia and utility of CERAD-K to vascular dementia patients", Journal of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for the Aged and Dementia, Vol.12, No.1, pp.31-38, 2011.
- [7] Y. Lee, M. Park, "Factors Influencing Caregiving Satisfaction among Family Caregivers of Patients with Dementia", Journal of Korean Gerontology Nursing, Vol.18, No.3, pp.117-127, 2016.
DOI: <https://dx.doi.org/10.17079/jkgn.2016.18.3.117>
- [8] A. Feast, E. Moniz-Cook, C. Stoner, G. Charlesworth, M. Orrell, "A systematic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BPSD) and caregiver well-being",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Vol.28, No.11, pp.1761-1774, 2016.
DOI: <https://dx.doi.org/10.1017/S1041610216000922>
- [9] H. S. Joo, Research on social problems with dementia and solutions for improvement: Concentrating on public understanding of dementia, Master's Thesis,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Incheon, 2004.
- [10] H. Brodaty, M. Donkin, "Family caregivers of people with dementia", Dialogues in Clinical Neuroscience, Vol.11, No.2, pp.211-217, 2009.
- [11] N. Mace, P. Rabins, The 36-hourda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1.
- [12] J. S. Kim, Study on the welfare for the aged in Korean aging society: Focused on the old stricken demential old people,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2003.
- [13] M. K. Choi, A study on the welfare policy of dotard in

the aging society,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Chungnam, 2014.

- [14] S. H. Lee. Study on family caregiving burden level and pattern of care of dementia patients, Doctoral Thesis, Chungnam University, Chungnam, 2014.
- [15] Y. H. Lee, Y. S. Lee,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Housing Environment for Korean Families with Demented Elderl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Planning & Design*, Vol.20, No.10, pp.129-140, 2004.
UCI: <http://uci.or.kr/G704-A00167.2004.20.10.001>
- [16] D. Y. An, K. D. Seo, I. K. Choi, "A Study on the Usage Behavior of Elderly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with Moderate Dementia: Focusing on Satisfaction with Memory School User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8, No.11, pp.353-361, 2017.
DOI: <https://dx.doi.org/10.15207/JKCS.2017.8.11.353>
- [1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Survey on The Prevalence of Dementia, 2012.
- [18] C. D. Lee, M. Y. Jeong, J. N. Kim, Y. J. Lee, "Effects of Client-Centered Home Modification and Caregiver Education on Activity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of Persons With Mild Dementia: A Case Stud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Vol.24, No.1, pp.75-88, 2017.
DOI: <https://dx.doi.org/10.14519/jksot.2016.24.1.07>
- [19] C. G. Kim, Y. H. Kim, "Nurses' Experiences of Caring with Demented Older Person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24, No.5, pp.454-465, 2012.
DOI: <https://dx.doi.org/10.7475/kjan.2012.24.5.454>
- [20] E. S. Kong, M. S. Choi, "Study on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caring older patients with dementi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Vol.23, pp.9-36, 2014.
- [21] Y. D. Choi, The effects of experience factors (4Es) of the farming village experience program on the visiting values and the intention of action,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2013.
- [22] M. H. Yong, Y. A. Yang, E. J. Kim, "A study on the knowledge of families with demented elderly persons for dementia", *Journal of Korea Aging Friendly Industry Association*, Vol.2, No.2, pp.41-50, 2010.
- [23] S. A. Lee, The effect of dementia family education program for dementia recognition, burden and depression in dementia caregivers, Master's Thesis, Kyungbuk University, Daegu, 2014.

박 소 연(So-Yeon Park)

[정회원]



- 2014년 2월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작업치료과 전문학사
- 2018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재학(의료인양성과정)
- 2018년 7월 ~ 현재 : 오른청소년
아동발달센터 작업치료사

<관심분야>
인지재활, 치매, 정신장애

김 덕 주(Deok-Ju Kim)

[정회원]



- 2010년 2월 : 한림대학교 치료과학
대학원 작업치료학과(이학석사)
- 2015년 8월 : 인제대학교 재활과학
과 작업치료전공(이학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청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작업치료, 장애인재활